

# 달동네 발산마을 '예술마을' 꿈 막히나

### 예술인촌 조성사업 돌연 중단... 주민들 허탈 광주시 "사업 성급하게 결정돼 타당성 검토" 주민 1200여명 서명... 계속 추진 요구하기로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큰 희망에 부풀었다. 강운태 전임 광주시장이 지난해 3월 21일 허름한 발산마을을 찾아 85억원을 들여 예술인 마을로 육성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도시가스를 끌어들이고 소방도로를 넓혀줬다는 '약속'을 할 때 환호했다.

예술인 창작공간이 들어오고 게스트 하우스와 방문자 지원센터, 공동 작업장이 조성되면 부산 감천 예술마을처럼 관광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도시가스가 놓이고 커다란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집값도 올라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졌다.

주민들의 커다란 기대는 1년도 못돼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전임시장의 공약이 물거품됐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다. '시장 따라 정체가 춤춘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상당수 주민들은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을 폐기하지 말아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는 '타당성 검토 뒤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주민들을 울리고 있다.

광주시는 7일 85억을 투입해 조성하기로 한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성급하게 결정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3월 20일 발산마을에서 '발산예술마을 조성사업 선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을 10개월만에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85억을 들여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발산마을을 예술이 숨쉬는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추진

됐다. 폐가 21곳을 매입하고 게스트 하우스 등을 조성하는가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소방도로를 넓히는 등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아트마켓, 체험관광 예술교실, 벼룩시장 등을 주민과 입주 예술가들이 함께 운영해 주민과 예술가 모두 고루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전임 광주시장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십년을 버텨온 동네 주민들과 예술인들을 불러모은 뒤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애초 계획했던 폐가 매입도 하지 않았고 올해는 한 톨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급기야 올 한 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예술가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개월 전 광주시장이 직접 찾아가 거창하게 발표했던 정책을 광주시가 '실익' 정책이라고 뒤늦게 인정하며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장이 바뀐 뒤 사업이 중단됐고 달동네 주민들의 부푼 꿈도 깨져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인 탓에 시장이 바뀌고서 돌연 사업이 중단됐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주민들은 민선 6기 들어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 발산마을 등 양 3동 주민 1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동네 주민들의 소박한 꿈을 깨지 말아달라는 게 이들 바람인데 광주시는 부정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성급하게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 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 해 주민과 예술인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일 광주시 서구 양 3동 발산마을에서 한 노인이 고물을 가득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서 마을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 욕설·폭행

### 광주서 택배 수령 시비끝에

"택배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30대 주민이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H아파트 경비원 B(65)씨는 주민 A(34)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오전 B씨는 A씨에게 "택배 물품을 찾아가라"는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가족 모임으로 외출을 한 상태라 다음에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B씨는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전 6시 30분에 교대를 해야 하니 택배물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경비실에 내려가 "개××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내일 찾아가겠다는데 왜 재촉을 하는냐"며 B씨의 목살을 잡고 발목을 걷어차는 등 15분 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B씨는 당시 충격으로 허리, 목 등을 다쳐 영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녁 8시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해고를 요구했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B씨에게 먼저 사과를 하도록 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B씨가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과하고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목격한 설비 기사 한모(35)씨는 "경비원 B씨가 A씨의 성화에 직장을 잃을까 걱정을 한 나머지 먼저 사과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비원 B씨는 관리용역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급여 133만원을 받으며 일해왔다. 지난 9월에는 서구 쌍촌동 주공아파트 주민 서모(46)씨가 70대 경비원에게 쉬고 있었던 것을 관리사무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5만 원을 빼앗는 등 서씨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그만둔 경비원이 15명에 달했다. 7일 주택관리공단이 조사한 관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경비근무자 폭행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2010년 8건 ▲2011년 7건 ▲2012년 8건 ▲2013년 28건 ▲2014년 8월 28건 등 총 79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신안 무허가 염전 업자 27명 적발

허가도 없이 소금을 생산해온 신안지역 염전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천일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쇄한 염전 등에서 소금을 생산해 '명품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운)은 지난해 8~11월까지 국내 천일염의 69%가 생산되는 신안지역 내 무허가 염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A씨 등 무허가 염전 운영자 27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고 폐쇄된 염전이나 염전 인근 농지를 전용, 염전 증발지 등으로 사용해 소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잡종지 1만9428㎡를 증발

지로 사용, 20kg짜리 소금 1만 포대를 생산해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폐염전 2만3207㎡를 증발지로 사용, 20kg짜리 소금 1만2000포대를 생산,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무허가 운영자가 생산한 소금량은 20kg들이 100포대에서 최고 1만5000포대(시가 7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허가 염전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이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명품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신안 지역 내 855개 염전에서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9%인 25만t 수준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발산마을은 지금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발산마을에도 새해는 찾아왔다. 광주전을 아래로 두고 산처럼 우뚝 솟은 언덕에 자리 잡은 발산마을의 겨울은 유독 춥다. 이곳에 살고 있는 154세대 300여 명의 주민은 지금껏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마을 도로도 워낙 좁아 소방차가 지날 수 없는 곳도 많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주민들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달동네의 척박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비 등 1억 원을 들

## 미술조형물에 칙칙함 다소 사라져... 도시가스 공급 안돼 불편 여전

어 마을에 5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다. 1억 원을 들여 마을 꼭대기로 오르는 도로 1곳과 2곳의 골목길에 달동네 특성을 살린 미술 조형물이 들어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생활 공간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발산마을 프로젝트 팀이 당선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미술로 적합한 마을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주민 생활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마을 꼭대기에 사는 주민들은 폭설이 내린 날이면 직접 마을 아래까지 수백m의 도로를 직접 끌고 삼으로 얼음을 부순 뒤에야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대로에는 제

설작업이 이뤄지지만 마을 안 도로는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발산 마을에 40여 년째 살고 있는 양재일(62)씨는 "생활 여건이 불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주민들이 상당수지만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다"며 "도시가스 공급이나 도로 개선이 힘들다면 제설작업을 해주거나 연화칼슘이라도 주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2억8천만원, 보 1억5천만원에 월 250만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빌라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파크 빌라 304호, 34평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이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다음 빌리지 301호, 32평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5500만원

문의 H. 010-3605-5000

## 전남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전원 주택지

- 광덕 교차로에서 3분거리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 H. 010-3605-5000